

# 민선7기 정책기조 · 도정비전 설명

학이시습의 날 맞아  
송하진 지사 특별 강연  
공심 · 조감능력 등  
공직자 자세 강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6일 '학이시습(學而時習)의 날' 행사에서 민선7기 도정비전과 목표'를 청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학이시습(學而時習)의 날' 행사에서 '민선7기 도정비전과 목표'를 청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공무원부터 도정비전과 목표가 의미하는 바를 뚜렷이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날 특강에서 송하진 지사는 '민선7기 도정비전과 목표' 이외에도 전라북도가 4년간 견지할 정책기조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 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주한옥마을', '탄소산업', '아트플러스' 등 전주시장 시절 이뤄냈던 성공사례를 토대로 민선6기 전북도정에 '내발적 발전전략'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GM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을 반전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민선7기 전라북도 가 극복해야 성취해야 할 과제들도 되짚었다.  
전북도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지역업체의 위기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취업 위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농촌지역 소멸위기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선7기에는 삼락농정, 토탈관관, 탄소융복합산업 등의 도정

핵심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도로·항만·철도·공항, 컨벤션, 대규모 숙박시설 등 핵심 SOC를 구축해야 하며, 자동차와 조선산업과 같은 주력산업의 노쇠화를 극복할 혁신적인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민선7기 4년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공무원들도 민선7기의 비전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여 '아름다운 100억'을 만들어 나가주길"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최종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증마크 부여 등 홍보·판매 지원

지난 4년간 추진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이 최종 선정되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5개씩 선정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이 '2018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을 마치고 최종 100선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친 이번 공모전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총 99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일반인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현장 실사 심사 등 총 3단계로 최종 25점을 선정했다.  
1차 일반인 심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도민 및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반영했고, 2차 전문가 심사는 지난 17일 관광·유통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해 진행했다. 그리고 3차 현장실사 심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선정업체의 현장여건을 확인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용품부터

예술성이 뛰어난 상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품들이 출품되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향후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자문 및 상품의 업그레이드 등 선정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재단은 선정 작품의 안정적 계도 진임을 위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인증마크 부여, 생산장려금 지원, 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박람회 참가, 특관행사 및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입점 등 홍보마케팅 및 판매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천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최종 완성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의 우수성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재단 1층 전시실(기스락1)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종 선정 작품 25점에 대한 전시회가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가 열린다. /송효철 기자

## 전북대 총장 선거 10월 치뤄질 듯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26일 전북대 총장 임명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제18대 총장 후보자 선거일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총장 후보자 공모 공고와 공모기간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개교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말 직선제로 뽑는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할 것과 관련해 학생과 직원의 투표 참여 방법과 선거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모두 6명이다.  
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교수는 이남호(농과대) 현 총장을 비롯해 이귀재(환경생명자원대학) 교수, 김동원(공과대) 교수, 양오봉(공과대) 교수, 김성주(의전원) 교수, 최백열(상대) 교수 등이다. /뉴스

## 靑, 文정부 2기 조직개편안 발표

기존 3실장·12수석·48비서관 체제에서 1명만 '순증' 국정상황실 → 국정기획상황실 등으로 명칭 변경

청와대는 기존 3실장·12수석·48비서관 체제에서 지역별 비서관 1곳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며 "현재의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지역별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의 경쟁력 제고 등 지역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범위 내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및 명칭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비서관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일부 조직을 각각의 통합·분리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청와대 조직 규모에는 변화없도록 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교육문화비서관·홍보기획비서관·연설비서관 등 3자리는 분리 작업을 통해 각각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뉘었다.  
기존의 정부기획비서관과 정부비서

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부비서관으로 정리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또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쳤다.  
명칭 변화도 이뤄졌다. 기존의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시민사회제도개선비서관실은 각각 사회참여·사회조정·제도개혁 비서관실 등으로 바꿨다.  
정책실장 직속의 정책기획비서관실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바꿨고, 경제수석실 산하의 중소기업비서관실도 중소기업진흥비서관실로 변화를 줬다.  
이외에 국가안보실 2차장 직속의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는 선임행정관급으로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뉴스

## 리승용 농촌진흥청장, 정읍 복숭아 과원 방문

리승용 농촌진흥청장이 26일 정읍 복숭아 과원을 찾았다.  
이날 리 청장은 폭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와 건의사항도 청취하면서 "폭염에 따른 과수 피해 예방과 함께 영농활동 시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센터는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에 대응한 과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폭염과 열대야는 과실이나 잎이 햇볕에 타들어 가고, 탄저병과 응애 등 병해충이 증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과수와 현상(過熟果 現狀, 과실이 지나치게 익음), 과실 비대 불량에 따른 수량 감소, 착색 지연, 당도가 낮아지는 등 과일 품질을 저하시킨다.  
기술센터는 "과수원에 적당한 토양 수분은 25~30%인데 정읍지역 과수원은 22.8%로 적정 토양수분 보다 낮아 폭염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관수를 통한 토양 내 적당한 수분 유지 ▲탄산칼슘이나 카올린 살포 ▲미세 살수 등을 실시해 햇볕에 입을 예방하고 피해 과실은 조기에 제거하며, 농약잔류허용기준(PLS)을 준수하여 병해충 방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